

# 신년사



“미래개척자(Future Maker)가 됩시다”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가고, 황금돼지의 해인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불구하고 세계 수출사에서 단기간 수출 3천억 달러를 달성하는 경이적인 기록과 함께 세계 10위권의 무역 강국으로 성장하는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출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데에는 4년 연속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낸 조선, 철강산업과 함께 자동차, 반도체 등 세계적인 경쟁우위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히, 반도체기술에서 40나노기술의 실현, 세계최초로 휴대인터넷 와이브로의 상용서비스 성공, 성장호르몬 치료제인 벨트로핀의 미 FDA 판매허가 등 미래 첨단산업분야에서의 성장잠재력을 확인하는 기술혁신성과를 거두어 2006년도 IMD 발표에서 보드 기술경쟁력 6위, 과학경쟁력 12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제도 국가연구개발투자의 기본 틀이 될 Total Roadmap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을 추진하였고, 또한 연구소의 Flagship 연구사업이 될 Top Brand Project를 추진하는 등 국가적 미래원천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비전과 노력을 기울인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연구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그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노력과 성과로 첨단 신기술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벤치마킹 해 왔던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을 위협할 정도로 세계적 연구역량을 확보하게 되었고 정보통신,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는 우리를 벤치메이킹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종래와 같이 선진국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하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산업을 벤치메이킹(Bench making)하여 미래를 개척하는 미래개척자(Future maker)가 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천기술개발의 산실로서 핵심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곳이 우리 기초기술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 여러분들입니다.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미래 국가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축적된 역량과 성과를 통해 세계 최고를 향한 연구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술혁신 노력과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부탁드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성과창출에 대한 조바심은 있지만 기술혁신에 있어 역사적 선봉에 있다는 자긍심이 있기에, 저와 연구원 여러분의 노력과 마음이 한데 어우러져 나아간다면 우리가 국가미래를 설계하는 미래개척자(Future maker)로 주목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가족 여러분, 판소리를 할 때 고수가 흥을 돋우기 위하여 중간 중간에 ‘추임새’를 줍니다. 저는 이러한 추임새와 같이 여러분들이 즐겁고 신나게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회와 소관연구기관 가족 여러분들이 서로 화합하고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생각이며, 이를 위해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도·밀·끌’ 정신이 충만한 연구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새해 새아침이 따로 있다더냐? 너의 마음 안에 천진을 꽃피워야 비로소 새해를 새해로 살 수가 있다”라는 구상 시인의 말씀을 거울 삼아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의 초심을 잃지 말기를 당부 드립니다.

황금돼지 해를 맞아 연구의 황금돼지를 각 연구소마다 많이 창출하여 기초기술연구회가 우리나라 원천기술개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2일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유희열

힘차게 솟아오른 붉은 해와 함께 대망의 2007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한국천문연구원 직원 여러분과 가족 모두 다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중대왕은 중국에서 입수된 천문학을 가지고 우리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문 현상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무척이나 가슴아파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베이징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한 천문학이 서울 하늘에서 맞을 리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일국의 제왕일진대 어떻게 내 나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측하지 못하나' 같은 생각에서 비롯된 대왕의 고뇌를 동북공정이 활개를 치는 요즘 꼭 되새겨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일월오봉도, 혼천의, 천상열차분야지도, 보현산 1.8m 망원경을 담은 새 1만 원짜리 지폐가 벽두에 발행됩니다. 국가가 융성할 때 천문학도 융성한다는 세계사의 교훈을 되새겨볼 때 이는 정말로 상서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은 천상열차분야지도를 고려 말 충신 유방택이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새해에는 개천절의 천문학적 의미를 규명하는 등 나라의 근본이 되는 연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과학기술이 문화와 손을 잡는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아니, 이미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천문학은 문화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학분야입니다. 우리 서포터들과 함께 국가의 문화를 바꾸고 국격을 바로 세우는 데 우리는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이 승전하는 대한민국 용의 여의주가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는 국제적 연구역량을 확보한 Global KASI, 끊임없이 혁신하는 Innovative KASI, 과학문화확산 선봉 역할을 수행하는 Science Korea KASI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립된 전략이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비전을 바로 이해하고, 예산과 목적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하고, 항상 비전과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임직원 여러분에게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천문대'와 '한국우주과학연구소' 두 기관이 합쳐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천문연구원이 일본 국립천문대 인원의 3분의 1, 예산의 10분의 1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를 쉽게 수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해에는 자체 장비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특허나 자체수입과는 거리가 먼 연구소라는 고정관념을 혁신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시민천문대에서 외제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일이 지양되도록 할 것입니다.

새해 들어 우리를 외부에 상징해주는 엠블럼과 로고도 모두 교체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모두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한국천문연구원 원장 박석재